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시민군과 애국주의*

홍 태 영 | 국방대학교

본 연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던 과거의 신민들이 국민 국가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어떻게 국민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근대적인 징병제도의 형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국민의 형성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국민으로 여겨졌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어느 집단이 징집의 대상이 되었는지 – 시민권의 문제 – 가 문제되고, 또한 군대는 동원된 인구를 교육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병제도는 신민이 국민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단순히 누구를 징집할 것인가를 넘어서 징집한 군인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 국가 이념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동원된 병사들은 군대 경험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가치와 문화, 언어 및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되었고, 징병제도는 국민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 시민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쟁점이 중첩되어 있다. 우선은 전통적으로 정치학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시민에 대한 상과 관련하여 시민군 혹은 병역이 갖는 의미와 연결된다.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고민 즉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플라톤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라는 특정한 시점과 관련하여 애국주의가 민족주의로 변환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 두가지 문제는 결국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시민의 새로운 위상 정립 그리고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의 위상이 정립된다. 시민군 혹은 국민군으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군의 위상 재정립 및 그것에 대한 새로운 편제의 과정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 즉 이전의 공동체들 – 제국, 도시공동체, 등 – 과는 다른 형태로서 '국가'의 성립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애국주의의 민족주의로의 변환이다.

주제어: 국민국가, 애국주의, 민족주의, 시민군, 국민, 시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27-B00021).

I. 들어가는 말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등장했던 다양한 변수들, 즉 봉건제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요인, 다양한 형태의 강압과 지배의 요소, 그로 인해 발생하였던 전쟁, 그리고 그것에 수반된 경제적 행위자와 강압의 전문가라는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자들의 활동 공간으로서 존재하였던 제국(empire), 국가(state), 도시공동체(city) 등이 경쟁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과 요소들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근대 국가는 서서히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근대의 유일한 정치공동체로서 위상을 확립하였고, 근대 국가들의 체계로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이자 동시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군(軍)'이며, 특히 그 과정은 애국주의적 시민군의 근대적 상비군으로의 재편과 맞물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대 국가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은 조세권의 독점을 통한 재정의 확보와 군사적 독점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일정하게 결합되어지는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 물리적 강압의 독점 과정은 다수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근대국가의 생성과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탐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홀함을 메꾼다는 의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문제와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중요시된 시민군과 근대적으로 재편되는 상비군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던 과거의 신민들이 국민 국가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어떻게 국민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근대적인 징병제도의 형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국민의 형성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국민으로 여겨졌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어느 집단이 징집의 대상이 되었는지 — 시민권의 문제 — 가 문제가 되었고, 또한 군대가 동원된 인구를 교육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단순히 누구를 징집할 것인가를 넘어서 징집한 군인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 국가 이념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동원된 병사들은 군대 경험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가치와 문화, 언어 및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되었고, 징병제도는 국민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근대 국가 형성과 관련한 연구들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많이 존재한다(Giddens 1991; Anderson 1990; Hobsbawm 1994; Tilly 1994, 2000; Elias

1995). 하지만 전쟁 및 군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베버와 마르크스적 시각을 결합하여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군의 문제를 다루었다. 대표적인 것이 기든스와 틸리의 연구이다(Giddens 1991; Tilly 1994, 2000).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 시기 시민군 혹은 국민의 문제와 국민형성의 문제를 애국주의의 민족주의로의 전화와 관련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애국주의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히 애국주의와 공화주의의 문제와 나아가 민족주의와의 관련성 등의 문제에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Cottret and Bell ed. 2002; Viroli 1995; Kateb 2006; Kantorwicz 1951; Godechot 1971; Samuel 1989, 3vol; Lang 2005). 물론 이러한 연구들과는 별도로 군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민병대, 시민군의 역사와 상비군의 형성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존재한다(Cooper 1993; Brady 2006; Harari 2005; Mackenzie 1995). 다만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민군의 문제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시민군의 국민군 및 상비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 시민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이 중첩되어 있다. 우선은 전통적으로 정치학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시민에 대한 상과 관련하여 시민군 혹은 병역이 갖는 의미와 연결된다.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고민 즉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플라톤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라는 특정한 시점과 관련하여 애국주의(patriotism)가 민족주의(nationalism)로 변환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시민의 새로운 위상 정립 그리고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의 위상이 정립된다. 시민군 혹은 국민군으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군의 위상 재정립 및 그것에 대한 새로운 편제의 과정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 즉 이전의 공동체들 — 제국, 도시공동체, 등 — 과는 다른 형태로서 '국가'의 성립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애국주의의 민족주의로의 변환이다.

II. 공화주의적 시민과 시민군

공동체의 방위와 관련하여 군대는 이미 플라톤 이래 정치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안전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있어 전사계급은 공동체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상위계층으로 간주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시민으로서 군대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는 용병에 대한 거부와 시민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공화국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공화주의적 덕목의 실현과 그것의 함양을 위해서 시민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 그리스인들의 전투를 치열하게 만든 것은 농경지에 대한 침탈위협이 아니라 신념, 즉 문화적 관념이었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굴복하거나 열등한 위치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이들을 전쟁터로 나가게 만들었다(Lynn 2006, 46). 바로 그리스인들의 평등의식, 독립심, 그리고 시민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던 강한 자긍심이 그런 전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중장 보병으로서의 능력, 즉 중장비를 한 벌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Mossé 2002, 68).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중장보병의 도시를 실현가능한 가장 최상의 제도로 생각했다.

중세의 군대는 고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부 도시민병대를 제외하면 중세의 군대는 소수의 귀족 기사들과 공민권을 갖지 못한 다수의 평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Lynn 2006, 178). 기사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용기, 명예, 충성심이었다(Duby 2005, 193-202). 당시의 문학작품이 칭송했던 기사도의 미덕은 주로 힘과 탁월한 용기였으며, 관용이 아니라 무력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사는 수중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돈을 지닌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주어야 했던 것이다. 호이징거의 표현을 빌면, "기사도에 근거한 사회적 환상은 기이할 정도로 현실과 상충되었다."(Huizinga 1997). 이렇게 현실의 전쟁이 기사도의 이상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귀족 계급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사도와 조화될 수 있는 형태의 전쟁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필요성 때문에 중세의 군사 엘리트들은 배타적이고 통제된 형태의 전쟁인 마상시합, 즉 인위적이지만 완벽한 전쟁을 고안해 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명예와 재산을 동시에 실현하려 하였다.

계몽주의 철학자이며, 「백과전서」의 집필자 중 하나였던 조쿠르(Jaucourt)는 "유럽 국

가들의 병사들은 국가의 신민들 중에서 가장 천한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다(Lynn 2006, 254에서 재인용). 1775~1777년까지 프랑스 전쟁성 장관을 역임한 생제르맹 백작은 자신이 거느린 일반병사들은 "인간쓰레기들이며 사회에 무용지물인 자들"이라고 묘사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해군에 대한 중요성은 있었지만, 육군은 소규모였고, 크롬웰의 공화정 시대 이후로 의회와 국민의 불신이 강하였다. 따라서 모병제였고, 비자발적인 이들 — 감옥살이를 대신하여 입대한 범법자들 — 이 상당수여서, '인간쓰레기들'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하였다(Fremont-Barnes and Fisher 2009, 344). 귀족계급출신인 장교들이 징집병인 일반병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경멸감은 귀족계급이 향유하던 엄청난 특권을 정당화하는 편견에 불과했다. 당시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권은 그들이 국가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특별한 봉사를 한다는 주장, 즉 장교로 복무한다는 것 — "피로 세금을 낸다" — 으로 정당화되었다. 귀족들은 자신들만이 용기와 왕에 대한 충성심의 기반인 명예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교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적합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명예심을 징집병인 농촌과 도시의 빈민들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던 것이다.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무력의 독점이다. 중세 시기 봉건영주체제에서 절대주의를 거쳐 근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국가형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영토적 경계의 확정이다. 이러한 경계선이 출현하면서 전쟁의 양상 그리고 군대의 형태 역시 변화된다. "전쟁의 수행과 제도들은 중앙집권적 권력의 수중에 점점 집중되었고, 차츰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국가권력만이 유일하게 전쟁에 뛰어들어 전쟁의 도구들을 관리"하게 되었다(Foucault 1998, 66-67). 전쟁의 국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군대 구성원이나 구성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으며, 진행형으로 존재하였다. 중세에 존재하지 않았던 집중화된 군대의 출현은 새로운 국가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부여받았고, 그것은 각자가 다른 생각 속에서 제시되었다.

17세기 중반부터 프랑스혁명직전까지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군대형태는 '국가위임군대(state commission army)'이다(Lynn 1996). 장교들은 연대를 모병할 권한을 왕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연대의 양성과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가가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표준화되었다. 국가는 또한 군대를 구체적으로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장교단에게도 복종과 위계질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군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지원병으로 채워졌지만, 대개 사병들은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속임수와 강요에 의해 입대했다.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 군에 지원한 사병들은 사회의 최하계층 출신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국가나 어떤 명분에 대한 자기동일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위해 외인부대를 모집하거나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1]

하지만 중세와 근대의 갈림길에 존재하였던 절대주의 시기에 형성된 상비군(standing army)은 '국가위임군대'가 체계화되면서 평화 시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등장하였다.[2] 상비군의 등장으로 중앙집중화된 왕권을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군사적 독점이라는 방식을 통해 근대 국가로의 길을 여는 수단이었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절대주의 왕권을 견제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상비군의 유지가 시민의 자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혁명 전후에서도 볼링브로크, 밀턴 등은 상비군에 대한 거부, 시민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주장하였다(Skinner 2007, 123-125). 칸트 역시 자신의 「영구평화론」에서 "상비군은 점차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ant 1992). 칸트에 따르면 상비군은 단순히 실존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에 대한 상시적인 위험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 군대는 다른 군대에 대해 무장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는 위협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군대는 자신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게 전쟁의 모험에 빠져 들어가도록 유혹할 수 있는 힘을 의식하게 한다. 따라서 평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자는 상시적으로 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독립혁명 시기에도 상비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690년대 영국의 상비군은 명백하게 영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로 규정되었고 그러한 사고가 그대로 식민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Bailyn 1999, 382-384). 따라서 결국 주전투력은 민병대(militia), 다시 말해 법의 수행을 위해 특히 내외의 적과 투쟁하기 위해 위험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국민군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로마 이후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다시 등장하는 공화주의 전통에서 시민군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이었다. 그리고 좋은 군주가 되기

1) 예를 들어 루이 14세 시기 국왕을 호위하는 군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근위대(gardes du corps)는 왕에 의해 귀족 중에서만 선출된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36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622년 이래 존재해온 총사대(mousquetaires)는 각 250명씩 2개 부대로 이 역시 귀족출신이었다. 그 외 왕궁을 지키는 호위부대(gendarmeries)가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연대(gardes-françaises), 다른 하나는 스위스연대(gardes-suisses)로 각각 3,630명과 3,20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스위스연대는 장교, 병사 모두 스위스출신으로 구성되었다(Carrot 1995, 13-14).

2) 프랑스에서 첫 번째 진정한 상비군은 1680년대 150,000 정도를 평화 시에도 유지하면서 등장하였다(Lynn 1996, 518).

위해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은 용병이 아닌 자신의 군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단언하였다.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군주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자신의 군대였음은 말할 나위없다. 루소는 유럽의 직업적 상비군이 두가지 목적을 위해 적합할 뿐인데 "하나는 인접 국가를 공격하여 점령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자국민을 속박하여 노예화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했다. 루소는 상비군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의 진정한 보호자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다. 모든 국민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의무에 의해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ousseau 1964a, 1013-1014). 루소는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나 초기 로마 공화국의 승리는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릴 줄 알고 조국을 결코 팔아먹지 않을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폭군들은 정규군을 창설하여 인민을 억압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Rousseau 1964b, 268-269).

상비군의 위험성과 시민군에 대한 공화주의적 애착 속에서 그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프랑스혁명 시기였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등장하고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그리고 군과 관련하여서도 고대적인 공화주의적 시민개념에 근거한 군이라는 개념과 새로운 근대 국가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군이라는 개념이 경쟁하면서 교차하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III. 프랑스 혁명과 시민군

프랑스 혁명은 근대의 정치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실험했던 시간이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끝자락에서 계몽주의 현실화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근대적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고대적 의미의 부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고대적 의미가 부각되었고, 로마의 공화주의가 부활되었다. 따라서 고대적 시민군의 의미가 드러난 것 역시 당연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그것들 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권력주체로 국민(nation)을 형성시켰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citoyen)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시민권 및 시민의 상(像)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들과 시각의 차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시민권 형성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재산의 문제였다. 사실'계몽주의 시대'어느 누구도 보통선거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백과전서』

에서 돌바크(d'Holbach)는「대표자(représentants)」라는 항목에서 "시민을 만드는 것은 재산이다; 국가 내에서 소유를 한 사람은 국가의 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특정한 협약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는 항상 소유자자로서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 때문에 말을 해야 하거나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갖게 된다"고 명시하면서 정치적 권리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Rosanvallon 1992, 46에서 재인용). 따라서 혁명 직후 시민의 모습은 '소유자로서 시민(citoyen propriétaire)'이라는 상(像)으로 확립되었다.

'소유자로서 시민'의 상과 함께 중요시되었던 것이 시민군(citoyen soldat)으로서의 상이다. '국민방위군'은 1789년 7월 13일 국왕의 허가를 받고 국민의회의 요구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은 행동하는 국민주권으로서, 국왕의 절대주의에 대항하여 새로운 힘을 현시하였다. 창설 다음날 바스티유의 점령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 중요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1790년 12월 국민방위군과 관련한 법령은 '투표권을 가진 적극적 시민에 한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투표권(droit de vote)과 방위권(droit de défense)이 동일한 형태의 사회적 함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의 기저에는 재산이 결정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미 1788년부터 1789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 여러 도시들에서 귀족들의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민중폭동에 대비하기 위해 부르조아들을 중심으로 국민군(garde nationale)이 조성되었다. 그것은 이미 전통적으로 존재해 오던 일종의 시민민병대(milice bourgeoise)의 성격이 강하였다.[3] 특히 '대공포'와 함께 프랑스 전역에 국민군이 조성된다(Lefebvre 2002). 당시 국민군은 귀족들에 대항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주요하게는 질서의 유지자로서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혁명이 진행되면서 부르조아들에 의해 장악된 의회의 시각에서 국민군은 질서의 유지자, 경제, 군사, 종교적 정책의 실행자였다. 1790년 2월 23일 법률에 의해 국민군은 소요사태와 관련한 인지를 통해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파리 시민들의 봉기 당

3) 부르조아 민병대의 기원은 1445년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이후 1688과 1691년 루이14세에 의해 체계적인 제2의 군대로서 자리잡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차적인 왕의 군대와는 구별되어 지역의 질서유지, 화재진압, 범죄예방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Carrot 1995, 12-14). 시민들에게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였다. 혁명 초기에도 민병대로서 국민군은 그들의 재정이나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민군(citizen-solidier)의 성격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였다(Clifford 1990, 851).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것은 질서유지라는 임무와 동시에 귀족주의적 질서에 반대한다는 명분 사이의 갈등이었다.

시 국민군의 5/6이 인민의 편에 가담하였다(Bertaud 1988, 24). 그리고 이후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국민군은 지속적으로 인민의 편에 가담하면서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순수하게 부르조아적 전망을 지녔던 국민군이었지만, 인민들의 봉기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자율권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1789년 8월 4일 밤 이른바 봉건적 권리에 대한 폐지가 선언되면서 동시에 국민군 내에서도 장교선출에 있어서 신분차별이 철폐되었다.

국민군과는 별도로 왕의 군대로 존재하였던 정규군은 도시, 농촌 등에서 지원병들에 의해 새롭게 충원되었지만, 그들 역시 급격한 정치화 과정을 거치면서 애국파 시민들, 봉기농민들에 대해 총을 겨누는 것을 거부하였다. 왕의 군대는 봉기자들과 연대하는 부류와 그들에 대항하는 부류로 분할되었는데, 대항하는 부류들은 대부분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부대이거나 파리시민들과 다른 지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 알사스인이나 로렌인들 — 의 군대였다(Bertaud 1985, 174). 파리의 봉기자들과 연대하고자 하였던 왕의 군대는 스스로를 국민의 일부로 선언하면서 왕이 아닌 라파예트(La Fayette)의 명령만을 듣겠다고 선언하였다.

1790년 6월 12일 법령(décret)이 있기까지, 국민군은 지자체의 관할에 있었다. 이 법령에 의해 국민군의 충원에서 시민권에 대한 조항과 연계지어 제한을 두었다. 즉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가 '적극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으로 나뉘면서 전자에 한해서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했듯이, 그들만이 국민군에 편성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시민의 의미가 공동체에 대한 방어의 의무와 권리 및 정치적 주권의 행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라보 생테티엔느(Rabaut Saint-Etienne)의 경우 의회 토론에서 국민군을 국민 자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evenne 1991, 56). 따라서 국민군의 충원은 시민권 개념에 의존하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었다.[4] 당시 그러한 이해는 시예스(Sieyès)가 말한 '제 3신분이 곧 국민'이라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였다. 시민에 대한

4) 물론 당시 원칙적으로 국민군의 구성원 능동적 시민이어야 했지만, 1790년 2월 18일 법률은 능동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 3일의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경우, 단 중단없이 16년 군복무를 한 경우 능동적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였다(Bertaud 1988, 47). 여성의 경우 1792년 304명의 여성이 여성 고유의 군대를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제기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일부 몇몇 여성들 남성으로 변장하고서 군대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사실 자코뱅의 산악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성의 공적 영역에 대한 진입은 어려워졌다.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랜디스(Landes 1988) 참조.

규정에서 능동적 시민에 대한 규정에서 '노동의 기준'은 일종의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비소유자는 그들의 게으름의 결과로서 경제적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민군 역시 제한적인 것은 시민권의 경제적 정의에 대한 반영이었다.

1792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먼저 선전포고가 이루어지고 혁명전쟁이 시작되면서 혁명은 프랑스만이 아닌 유럽의 문제가 되었다. 개전 초기 이미 장교의 절반 이상이 망명하였고, 애국주의적 사병 혹은 민병대와 귀족주의적인 지휘부와의 갈등이 있는 등 군대는 혼란상태였고 초기의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하지만 초기의 이러한 패배는 오히려 시민들의 애국주의적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5] 7월 11일 의회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la patrie en danger)'고 선언하였고, 수동적 시민 역시 국민방위군에 가입 — 1792년 7월 30일 법령에 의해 — 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우선 프랑스 내부적으로 8월 10일 봉기가 발생하고 공화국의 선포와 국민공회의 소집 그리고 공포정치로 이어진다. 이제 국민방위군에 가입한 모든 병사들 — 능동적, 수동적 시민을 막론하고 —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조국의 방어, 즉 모든 시민이 방위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 즉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의 표현이었다. 이 때 등장한 상뀔로트들은 자신들에 속한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를 원하였다. 파리 시민들은 "시민의 어떤 특정한 계급도 조국을 수호할 배타적 권리를 독점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Soboul 1984(上), 244에서 재인용). 애국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리의 행사와 동시에 군대의 의무를 통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적극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지고 당연히 하층인민들 즉 상퀼로트들 역시 국민군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특히 농민들에 의해 충원된 수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1791년의 첫 프랑스 헌법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무장력이 분명하게 고수되지만, 2년 후 제1공화국의 헌법은 '공화국의 일반적 힘(force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즉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이다(Tous les français sont soldats)"는 말로 전환됨으로써 '국민군'의 위상을 확립시킨다. 이러한 시민군 혹은 국민군이 자유 혹은 공화국과 맺는 관계는 애국주의적 문제설정 즉 자유 국가의 실현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792년 8월 10일의 봉기,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 등으로 혁명은 급진화되고 유럽은

5) 1792년 4월 26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루제 드 릴르(Rouget de Lisle)는 국민적이며 혁명적인 열정을 노래한 '라인주둔군을 위한 군가'를 작곡하였고, 신성한 애국심의 대상으로서 조국의 수호를 노래하였다. 이것이 국가(國歌) 즉 라 마르세이에즈(La Marseillaise)이다.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을 형성하였다. 1793년 2월 24일 30만 동원령이 내려지고, 징병의 원칙에 따라 18세에서 40세 남성에 대해 징집령이 내려진다.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는 남성, 여성, 노인, 어린이 각각의 계층이 조국에 대해 해야 할 임무에 대해 나열하면서 '총동원령(Levée en masse)'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이제부터 적군이 공화국 영토로부터 쫓겨나갈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대에의 복무를 위해 영구 징집된다. 젊은이는 전쟁터로 갈 것이다. 기혼 남자는 무기를 제조하고 식량을 운반할 것이다. 부녀자는 막사와 제복을 만들고 병원에서 간호를 맡을 것이며, 아이들은 헌 린네르 천으로 외과용 가아제를 만들고 노인네들은 광장에 모여 장병들의 사기를 고무하고 군주들의 증오심과 공화국의 통합성을 가르칠 것이다."(Soboul 1984(上), 323에서 재인용) 이제 전쟁은 국민의 전쟁이 되었고, 인민의 총력전이 되었다.[6]

군대의 급격한 '국민화(nationalization)'가 진행된다.[7] 새로운 '군통합법과 군편성법'에 의해 장교와 장군들까지도 선출되었다. 생-쥐스트(Saint-Just)는 "군대의 특정 지휘관을 선출하는 일은 병사들의 시민권에 속하며, 장군을 선출하는 일은 전체의 시민권에 속한다."고 선언했다(Soboul 1984(下), 57에서 재인용). 혁명이 급진화되는 1793년 이후부터 파리 시민들은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군은 '병사들의 협의회'를 만들어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Bertaud 1985, 189). 거기에는 더 이상 장교도 부사관도 병사도 없었다. 협의회에서는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평등한 구성원만이 존재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대는 시민의식의 학교로서 작동하였다. 이러한 군대의 기여에 대하여

---

6) 국민개병군대(popular conscript army)라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가 국가위임군대를 대체했다(Lynn 1996b, 360). 국민개병군대는 자국 국민들로만 병력을 충원했고, 이들 시민병사는 국민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투력이 1793년에 출현했다. 전쟁은 돌연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자신을 국민으로 여기는 인구는 무려 3천만 명이었다.... 프랑스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군을 대신해 전체 국민의 비중이 힘의 균형을 좌우하게 되었다."(Clausewitz 1998, 389) 클라우제비츠는 애국심이 프랑스혁명에 의해 호리병 밖으로 불려나온 강력한 요정이며, 이 요정을 다시 호리병에 가둘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7) 국민화(nationalisation)의 의미는 프랑스혁명 당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혁명 당시 귀족이나 교회의 재산을 국민화(nationalisation)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유화라는 의미에서 소유권을 바꾼다는 의미 이상으로 국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 과정은 곧 국민의 주체로서의 형성과정과 맞물려 작동하였다(Rosanvallon 1990).

생-쥐스트는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은 수와 규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정신이 군대 내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군대내의 애국주의가 승리의 척도임을 강조하였다(Bertaud 1985, 199). 당시 군사지휘권은 민간권력에 있었으며, 그것은 군대란 혁명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에서 그러하였다(Soboul 1984 (下), 58). 조국의 위기 속에서 혁명 전쟁은 한편으로 조국 방위전쟁이었고, 특히 그것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혁명가들 역시 국민방위대의 혁명열기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마라(Marat)는 1793년 1월 27일 상퀼로트가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 한 자유를 위한 승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베르(Hébert) 역시 명령권자의 자리에서 음모가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에 대한 정화(purification)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에베르는 "귀족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고 확언하면서 시민을 선동하였다.

국민군 내부에서 장교들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들의 군대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사랑과 영광, 명예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악파에게 군대는 일종의 공화주의 정신을 습득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생-쥐스트는 병사들이 소유권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공화주의 원칙을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생각했다(Bertaud 1988, 192). 당시 군대 내부에서 사용되던 암호들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암호들은 고대 로마 공화국으로부터 온 것들 - 덕성, 용기, 승리, 로마, 카토(Cato), 단일성(unité), 형제애(fraternité) 등을 비롯하여 법률과 국민공회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대 내에서 다양한 연극활동 등을 통해 애국심과 공화주의에 대한 고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민축제를 통하여 군대와 인민 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이미 이전에 연맹제는 물론, 툴롱 탈환을 기념하는 축제 등이 그것이다(윤선자 2008). 혁명력 2년 애국주의적 병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축제는 자코뱅이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의 교육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 1792년 4월 15일 샤토비유(Chateauvieux)에서 이루어진 스위스병사들에 대한 추모축제가 그것이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프랑스 내부에서 애국주의적 동원과 애국주의적 시민의 형성은 프랑스라는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혁명 전쟁은 프랑스 혁명이 제기하였던 근대적 이념들 특히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유럽 각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시에 오히려 더욱 더 중요한 의미에서 유럽에 민족주의 시대를 열었다. 프랑스의 혁명군으로부터 공격에 대항하여 유럽 각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애국주의적 내지는 민족주

의적 동원을 이루어냈고, 그것을 계기로 근대적 형태의 국민국가 형성의 길로 접어들었다.[8] 프랑스 내부에서는 혁명과 반혁명, 외부적으로는 프랑스 대부분의 유럽 다른 나라들과 대립하면서 네이션, 조국, 애국주의 등의 개념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IV. 국민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프랑스 혁명과 이후 나폴레옹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후 19세기의 과정은 고대 이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문제설정과는 단절을 이룬다. 고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개인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개인들의 평등의 실현 — 내지는 토크빌적인 의미에서 조건들의 평등화 과정 — 의 역사와 결합되어 왔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권은 권리이자 절차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의미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유의 실현과 공동체의 덕목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였던 시민군의 위상은 이제 근대 국민국가 속에서 새롭게 규정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기존의 자유에 대한 관념, 시민권의 개념 등이 재배치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가운데서 시민군 역시 새로운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국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제관계에서 군대는 국가의 팽창 — 자본의 팽창이 추동하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간의 충돌 등 — 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기존의 공화주의적 전통의 시민군 개념이나 애국주의적 요소는 거의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요소의 부재 속에서 군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대체하는 작인이 민족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테르미도르 이후 축제에서 군대와 인민 사이의 연대가 강조된다. 공식적 연설에서 "군대는 헌법적 기초의 결코 흔들일 수 없는 기둥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연설의 문구였다.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군대와 인민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왕당파의 유령 그리고 인민의 봉

8)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이다. 예나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프로이센은 굴욕을 강요받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덕성회(Tugendbunde)라는 反프랑스조직을 만들었고, 단순한 애국주의를 넘어 독일민족의 대동단결을 부르짖는 조직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은 훗날 『전쟁론』을 쓸 클라우제비츠 등의 젊은 장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센 병사들은 '국왕'이 아니라 '조국'을 외치게 되었다(Fremont-Barnes and Fisher 2009, 464-466).

기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서히 국민군과 인민 사이의 공화주의적 연대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797년 자코뱅과 상퓔로트의 몰락, 왕당파의 세력화 속에서 공화주의적 부르조아들은 일정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서서히 장군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독자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군을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로 만들었다.

1796년 보나파르트의 이탈리아 정책은 하나의 명백한 분기점을 이룬다. 개인적 야심이 정책결정의 주된 동기로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oboul 1984(下), 168). 이러한 변화는 그것이 군사적 승리에 뒤따르는 위광으로 장식되었던 만큼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애국주의는 공화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 속성을 상실했고, 민족주의가 나타났다. 이리하여 공민정신과 혁명적 열정은 외국에 대한 경멸감, 군사적 영광, 국민적 허영심 등으로 바뀌어 갔다. '위대한 민족(Grande Nation)'이라는 민족적 자만감을 불어넣은 말은 총재정부 말기부터 유행했다. 시민군은 자신의 운명을 조국(la Patrie)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전능한 지도자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

1798년 9월 5일의 징병에 관한 주르당 법(loi de Jourdan)과 함께 사회의 군사화가 시작되었다. 주르당 법률은 강제적인 군복무서비스제도를 도입하였고, 미혼의 20~25세 남성의 의무복무를 제도화하였다. 군대는 서서히 국민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르당 법률을 통한 징병제 원칙과 함께 직업적 군대 즉 새로운 직업주의가 탄생하였다. 나폴레옹 군대의 징집기한은 6년으로 장기복무에 따른 직업주의가 가능하였다. 이제 군인들에게서 자신과 조국 혹은 국가보다는 군대라는 조직과의 동일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내부에서의 시민교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1798년 군의 현황을 보면, 기존의 국왕의 군대 출신은 3.3%, 지원병은 27.9%, 1793년 30만 거병에 기원을 두었던 군인은 18.2%로 줄었다(Bertaud 1988, 277).[9] 따라서 이제는 공화력 2년 이후 징집을 통해 충원된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된 군대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환은 징집의 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나폴레옹 군대의 승리 요인으로 많이 드는 것은 군대의 기동력이었다. 동시에 징집의 빠른 속도에 있어서도 다른 군대를 능가하였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징집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혁명 시기 자발적

9) 1791년 지원자는 10만 명 수준, 1792년 지원자는 20만 명이 넘어섰다. 1793년 총동원령 시 30만 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그리고 1794년까지 지원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00만 명에 이르렀지만, 1797년에는 38만 명까지 하락하였다. 1800년에서 1814년 사이 나폴레옹의 군대는 200만 명을 유지하였는데, 그것은 징병제에 기반한 것이었다(Lynn 1989, 158).

인 지원군에 크게 의존하였다면, 이제 나폴레옹은 징집을 체계적인 행정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이것은 근대국가 체제에서 행정체계의 확립과도 연관되었다. 혁명 이전 지방제도는 자치적인 코뮌(commune)과 지역(région)이 있고, 혁명과 함께 그 중간단위의 행정체계로서 도(département)가 설치되었다. 도에는 도지사(préfet)가 중앙으로부터 파견되어 중앙집권화된 체계를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뮌은 주요한 자치단위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행정기구로서 역할이 지대하였다. 나폴레옹은 코뮌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중앙의 행정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시 코뮌과 도 사이에 '군 혹은 구(arrondissement)'를 설치하고 '군수나 구청장(sous-préfet)'를 두어 보다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지방행정체계가 등장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징병제도였다. 즉 보다 체계적인 징집을 위해 행정체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Woloch 1986).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근대국가 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관료제의 성립의 기반이 되는 행정체계의 성립이 국가에 의한 군사적 독점의 과정에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징병제가 곧 인구(population)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전일적인 인지의 과정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과정은 전국토에 대한 전일적인 행정체계의 확립과도 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징집된 군대는 이제 독립적인 체계와 원칙을 갖추어갔다. 나폴레옹 군대는 혁명전쟁을 거치면서 고정된 사단체계를 확립하였고, 2, 3개의 보병사단에 자체기병과 포병전력을 갖춘 실질적인 축소판 군이라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군단체제를 확립하였다(Fremont-Barnes and Fisher 2009, 43). 그리고 군단에는 고정 참모진이 배치되었다.[10] 이러한 군대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군대를 유지하는 원칙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전 혁명 시기의 군대가 "덕성의 군대"였다면, 나폴레옹의 군대는 "명예의 군대"였다(Lynn 1989). 앞서 조국의 위기와 함께 혁명이 급진화된 시기 공화국은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였고, 군대 역시 덕성스러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 확대되고 힘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새롭게 제시한 원칙이 "명예의 군대"였다. 그것은 특히 병사들에게 보상과 승진을 매개로 한 사적인 이익의 자극이었다.[11] 또한 능

10) 19세기와 20세기에 위세를 떨친 프로이센식 참모제도 역시 1806년 프로이센의 패배에서 비롯된 산물로 나폴레옹에 그 원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Fremont-Barnes and Fisher 2009, 63).

11) 이 시기 명예는 중세 기사에게 요구되었던 명예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 명예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의 실현이라는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력을 발휘한 이들에게 레종도뇌르(Légion d'honneur)라는 훈장이 주어졌다. 18명의 장군을 개인의 능력과 충성도에 의해 원수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나폴레옹 군단을 이끌었으며, 두둑한 봉급이 수반되었다. 원수의 꿈은 모든 프랑스 군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포부였다.

군대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에서나 정신적인 거리의 측면에서나 점점 국민과 멀어져갔다. 1795년부터 혁명군은 프랑스가 아닌 영토에서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약탈에 의해 보급을 충당하였다. 그것은 시민군이 가지는 존경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지역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화국의 덕성이 강조되던 시기 약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시기 군대는 보급이 원활하지도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약탈을 강요받았고 당연하게 생각하였다(Lynn 1989, 161). 군대가 점점 프랑스로부터 멀어져 외국 영토로 진출할수록 독자적인 활동세력이 되었다. 병사들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사실 나폴레옹의 군대로 프랑스 본토로 멀어지면서 또한 승리를 거듭하면서 군대의 성원은 외국인들에 의해 많이 충원되었다. 나폴레옹 군대의 최대 승리 중의 하나인 1805년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때와 달리 1809년 對오스트리아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프랑스 군대는 라인동맹과 이탈리아, 폴란드에 더해 나폴리 왕국, 스페인군대까지 동원되어 구성되었다(Fremont-Barnes and Fisher 2009, 190). 러시아를 공격할 당시 60만 대군 중 절반이 외국군으로 충원되었다. 전쟁 수행지역이 본토로부터 멀어지면서 외국 영토의 점령은 병사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단으로 마련하는 재정적 수단이 되었다. 군대는 시민 권력에 대해 독립되어 갔다. 승리는 공화국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였고, 그럴수록 보나파트르는 더욱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미 1797년 7월 14일 밀라노에서 보나파르트를 공화국의 구원자로 묘사하는 자발적인 행진이 이루어지고 전쟁영웅으로 부각시키면서 예고된 것이었다.

V. 근대 국민국가와 군대

명예혁명 이후 영국은 체계적인 근대국가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 결합하면서 더욱 그러하였다. 명예혁명 이후 보다 근본적인 '재정혁명(financial Revolution)'을 통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고 증권거래소를 확립하면서 자본주의 발전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12] 전쟁 및 군과 관련하여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는 이제 서서히 '영구적인 전쟁국가(permanent war state)'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Mann 1988, 108). 1700년과 1815년의 군비지출을 비교하면,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15배 —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0배 이상 — 증가하였다. '영구적인 전쟁국가'란 국가의 전쟁관련 예산이 일단 증가하고 나면 전쟁이 끝난 뒤라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 국가의 재정은 대부분에 있어서 외국과의 전쟁에 의해 지배되었다. 전쟁이 직업군인과 상비군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군사비 지출은 전쟁 시에는 전비 지출로, 이후에는 전비에 대한 빚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은 단순히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러한 군사적 모험을 필요로 했던 18세기 이후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과 결합되어 있다. 즉 원료와 상품 시장을 찾으려는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의 해양진출과 맞물려 있다. 해외진출이 국가적 사업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첫 예는 근대 이후 최초의 체계적인 헤게모니국가를 이루었던 네덜란드이다(Arrighi 2006). 네덜란드의 헤게모니가 정점에 이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유럽에 근대국가 체제가 성립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즉 종교전쟁의 종결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시점은 유럽에서 새로운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하는 시점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요인에 의한 군사력의 증대는 결정적이다. 즉 근대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설정되기 시작하면서 '국민경제'라는 경제적 경계 및 군사적 경계가 동시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19세기 자본주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군사력에 기반한 국가의 공권력의 성장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운동의 성장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기능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군사력의 증대가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은 외부적 요인 즉 외국과의 전쟁이라는 측면에 비교한다면 부차적이다(Mann 1988, 110).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군사지상주의(militarism)적 경향과 자본주의와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가 기본적으로 16세기 말에 시작된 '군사혁명(military revolution)'에서 출발한다는 약간은 과장된 주장처럼

12) 영국의 명예혁명의 진행과 성공에 작용했던 요인들 중에는 프랑스 루이14세의 정책, 네덜란드 오렌지공의 선택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였다. 영국이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의 열강으로 진출하기까지 유럽열강들의 세력관계와 전쟁이라는 요인은 주요하였다. 재정혁명 역시 전쟁의 필요와 명예혁명의 결과였다(Parker 2009, 154-155).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13] 산업혁명이 가져온 효과에 따라 철도와 통신의 발달이 전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전개양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전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19세기 초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 혁명과 이후 혁명 전쟁은 시민전쟁 혹은 이전의 제한전쟁으로부터 전면전으로의 전환의 계기였다. 1792년 발미전투가 보여주듯이 전쟁은 국민에 대한 총동원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전쟁이 전개되면서 그것은 전면적이고 전국민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 흐름 속에서 판단한다면, 패러다임의 변동이 발생한 것은 오히려 1860년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60년대의 전쟁은 분명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성격을 띠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그리고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그것들이다. 우선 거대한 규모의 징집을 통한 군대와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새롭게 국민국가의 모습을 갖춘 나라들 간의 전쟁이 되었으며, 이제 총력전(total warfare)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쟁이 사회의 중요한 업무로서 그 위치가 고양되었고, 사회조직의 전반이 군사적 목적을 바탕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군사지상주의가 등장하였다(박상섭 1996, 231).

산업화에 따라 철도교통과 같은 대량수송 수단이 발전하고 전보와 같은 빠른 통신수단의 발달은 수백만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한몫하여 총포기술의 발달에 따라 군대의 전술에 영향을 미치고 징집의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14] 프로이센의 참모제도가 19세기 후반 전 세계 군대의 기본적인

---

13) 로버츠(M. Roberts)는 '군사혁명(military revolu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국민국가의 출현을 처음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1560년에서 1660년 사이에 전술혁명, 군대규모의 급증, 대담한 공세전략의 출현, 전쟁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등의 측면을 고찰하여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통치되는 국민국가라는 조직체가 16세기 말에 출현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로 파커(G. Parker), 로저스(C. Rogers), 블랙(J. Black) 등은 시기의 차이들을 제기하면서 군사혁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이명환(2007) 참조. 이러한 견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변화 특히 전쟁의 확대와 그것의 국가에 의한 독점 그리고 그에 따른 군대의 체계화 등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14) 나폴레옹 시기 머스킷(musket)은 50야드가 정확했고, 200야드가 넘어가면 무의미했다. 1870년에 유럽의 주요무기는 과학적으로 정밀해진 라이플(rifle)이었으며, 500야드가 정확했고, 2~3,000야드까지 효과가 있었다. 또한 화약을 총구가 아닌 총의 후미에서 장전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1866)에서 프로이센군이 6발을 발사하는 동안 오스트리아군은 한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부싯돌에 의한 격발(flint-lock)이 아니라 충격뇌관방식(percussion

틀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군은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프로이센 군은 몰트케(Moltke) 장군이 이끄는 새로운 군대였다. 새롭게 건설된 철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였고, 베를린의 사무실에서 전장 전역을 전보를 통해 통제하였다. 전투체계에 있어서도 군단은 참모시스템에 의해 보완을 받으면서 두뇌전을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군교육기관인 군사아카데미(Kriegsakademie)를 통해 양성된 "두뇌"들을 통해 참모제도를 확립시키고 거기에 하위부대들을 종속시키도록 하였다(Bond 1984, 20).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 역시 새로운 군사주의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코뮌과 함께, 국민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민군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다.[15] 프레시네(Freycinet)와 강벳타(Gambetta)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군대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전문화된 민간인력 — 의사, 엔지니어 등 — 을 군에 징집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독일군 모델을 따라 1876년 '전쟁학교(Ecole de guerre)'를 설립하였고, 프레시네가 국방장관으로 있던 시기(1888-1893)에 참모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기간 역시 단기로 전환하였다(Lynn 1996, 525). 이 시기 징집의 방식도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 징집의 방식이 대중의 자발성 혹은 애국주의적 감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징집은 평상시에는 소극적이다가 전시나 비상시기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징집은 항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 물론 남성시민이지만 — 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군대는 일반적으로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업적인 군대가 아닌 파트타임의 예비군 개념으로 변화되었다(Lynn 1996, 521).

이러한 군사적 측면의 변화가 근대국가 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더욱 더 큰 것이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1870/71년 전쟁은 프로이센에게는 특히 의미있는 전쟁이었다.

---

cap)으로 전환되면서 보병들의 전투방식을 바꾸어 전통적인 전투횡대에서 유연한 전투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포기술의 변화에 의해 기병은 그 의미를 잃었다. 프랑스 역시 프로이센의 후장식 라이플의 문제점을 해결한 채스포(chassepot)를 생산하여 라이플보다 격발하기 쉽고 안전한 총을 개발하였다. 프로이센의 니들건(needle-gun)이 600야드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채스포는 1,600야드의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Howard 2001, 1-8).

15) 나폴레옹 시기 이후 약화된 국민방위군은 복고왕정시기 1827년에 샤를 10세에 의해 해산당하였다.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1848년 6월의 노동자 봉기 때는 정규군과 함께 그들을 진압하였다. 제2제정 시기는 다시 명목적으로 존재하였고, 1870년 9월 4일 공화국의 선포와 함께 다시 소집되었다. 이때 국민방위군은 민중들로부터 주로 충원되면서 시민군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그것이 파리코뮌의 동력이 되었다(현재열 2000).

신생제국 국민이 최초로 행한 공동의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마치 프랑스인들에게 나폴레옹 1세의 전쟁의 했던 역할과 비교되었다(Dann 1996, 155). 9월 2일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전멸당했던 날은 프로이센에게는 국민축제일 — '세당의 날' — 이 되었다. 이제 프로이센 군대는 이 전쟁을 통하여 국민적인 축성을 받게 되었으며, 그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은 이러한 제국애국주의(Reichspatriotismus)의 우선적인 확인의 장이 되었다.

물론 총동원을 통한 총력전이 본격화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16] 국민전체가 전쟁을 위해 동원되었고, 국민경제 전반이 전쟁경제로 전환되었다. 국민들을 위해 전쟁여론의 조성 즉 그것은 '애국주의적' 동원을 위한 여론의 조성이 중요하였다. 당연히 19세기 동안 형성되었던 노동자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극히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선동에 동요되지 않았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던 나라들은 병역과 시민권을 연결지어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17] 공적 권리이자 의무로서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부여는 당연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전쟁 직후 1919년 통과된 연금법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공화국은 조국의 안녕을 수호하였던 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현행 법률에 준하여 이하의 사람들에게 보상의 권리를 선언하고 결정한다: 1/전쟁으로 인해 불구가 된 육·해군인, 2/프랑스를 위해 죽은 이들의 미망인, 고아 및 후손들." 전쟁 직후 최초로 취한 복지정책은 일종의 사회적 권리의 부여였다. 시민권의 확대과정이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 속에서 '애국주의를 표방한 민족주의적' 문제의식의 실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홍태영 2008, 328-329).

민족주의자들에게 군대는 자신의 조국(la Patrie)에 대한 관념을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등장한다. 민족주의자들에게 조국은 "땅과 죽은 자들"이었다(Winock 1990).[18]

---

16) 19세기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럽적인 군사모델과 국민국가의 틀이 확산되었다. 이집트나 일본은 서구적 군사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기 시작하였고(Lynn 1996, 521),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군사력을 키웠으며,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 이후 국내통합과 동시에 중앙아시아로 서진하기 시작하였다(Giddens 1991, 266), 이러한 의미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전세계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17) 영국의 경우 징병제가 도입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18개월이 지난 1916년 1월에야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오랫동안 영국은 개인의 자유의 신성함과 국가 간섭의 최소화라는 원칙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면서 징병제가 영국의 전통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징병제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간섭이며 통제라고 간주되었다(최재희 2004).

18) 네이션은 "현재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성원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영속

20세기 초 드레퓌스 사건 당시 극우민족주의자들은 비록 드레퓌스가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앞선 결정된 사실들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조국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군대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이에 대비되어 1910년 프랑스 사회주의자 조레스는 『새로운 군대(*L'Armée nouvelle*)』라는 책을 통해 국가와 군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정한 국가방위를 위한 군대는 상비군이 아닌 민병대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평화주의와 현실적인 상비군의 병영적, 위계적 질서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레스는 여기에서 1793년의 봉기를 '가장 신성한 의무'였다고 평가하면서 현대에서 총파업은 그러한 전통을 잇는 프랑스 프롤레타리아의 신화라고 주장한다(Jaurès 1992). 그는 프롤레타리아는 조국이 없다는 공산당 선언의 유명한 구절은 지나친 역설이라고 해석하였다(노서경 2001, 58). 조국을 배타적인 경제적 범주나 계급성에 기반하여 해석하지 않으려 하였다. 조국은 훨씬 높은 이상과 깊은 유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국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군은 인민과 혁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러 군대는 명확히 전문화되고 전쟁은 '산업화' 되었다. 더 이상 용병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에 전문화된 군대제도와 장교단의 조직화 그리고 위장전술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때까지 입었던 밝고 화려한 군복 대신에 모든 계급의 병사들에게 어두운 색깔의 군복을 입혔으며, 그에 따라 군대에서 예식적인 측면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Giddens 1991, 263). 또한 육지, 바다, 하늘에서의 군사행동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점 등은 결국 제한 전쟁에서 전면전쟁으로 나아가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들은 제국주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민족들 간의 전쟁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어 19세기 동안 끌어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글을 나가며

본 연구는 시민군 혹은 국민군의 근대적 상비군으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서 근대의

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가라타니 고진 2009, 72). 이러한 고진의 지적은 상상의 공동체의 네이션 개념을 지적한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기독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종교적 성격을 지닌 근대국가라는 특징을 지적한 뒤르카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요한 이념으로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변환과정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국민국가 형성에 주요한 계기를 이루었던 프랑스혁명 시기 시민군의 형성 그리고 혁명전쟁을 거치면서 변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족주의 개념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민족주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 역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정복전쟁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였다. 프랑스 혁명전쟁은 이전과 같은 왕조 전쟁이 아니라 국민전체가 동원되고 참여한 총력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유럽에서 지배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이었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19] 하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민권의 조건으로서 국민권이 요구되면서 네이션의 범위를 둘러싸고 그리고 전쟁과 함께 네이션을 동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애국주의 내부에서는 서서히 내셔널리즘의 요소를 만들어냈다. 특히나 애국주의적 동원이 가능했던 것이 전쟁이라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하게 외부의 적에 대한 타자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상(像)은 자연스럽게 시민군의 상과 겹쳐졌다. 이후 19세기의 프랑스 역사에서는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오랜 노력 속에서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모습보다는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지니고 있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제 3공화국에서 특히 '드레퓌스 사건(Affaire Dreyfus)'을 계기로 잠재되어 있던 배타적 민족주의의 경향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정하게 그러한 경향은 태생에서부터 잠재되어 있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당들이 각 나라에서 의회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른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민족주의에 있어서도 뚜렷한 분화가 발생하였다. 독일의 경우 국민 민주주의적 애국주의와 반민주주의적 민족주의의 대립, 프랑스의 경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극우파의 민족주의가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국제주의를 외치던 사회주의자들도 대부분 애국주의적 전쟁에 동참하였다. 계급의 형성과 국민의 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과정이었다.

세계화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가라는 경계는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 있다. 최근 프랑스 총리 피용(F. Fillon)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정체성 확립방안'

19) 프랑스어에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e)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98년이지만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860년 이후이다(Godechot 1971, 482).

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공립학교의 국기게양, 초·중·고 교실에 1789년 프랑스혁명 때 발표된 인권선언문 게시, 학생들에게 시민생활 수칙이 담긴 수첩 배포, 1년에 한번 이상 학생들 국가제창, 이민자에 대한 평등이념 교육, 국가정체성위원회 설립 등이 골자이다. 2010년에 새롭게 제기된 1789년 혁명 당시 애국주의적 내용들은 당시에는 분명 절대주의 왕권에 맞서면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들을 담보하는 것들이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이 부각되는 맥락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은 최근 세계화 속에서도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 형성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세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은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의 모색 역시 그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져 한다. 현재는 전통적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적,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이민, 자원고갈, 그리고 인구문제 등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안보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시민군의 전통적인 문제의식, 즉 민족주의 이전의 애국주의가 현재에 오히려 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 저. 조영일 역. 2009. 『네이션과 미학』. 서울: 도서출판b.

노서경. 2001.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서울: 책세상.

박상섭. 1996.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윤선자. 2008. 『축제의 정치사』. 서울: 한길사.

이명환. 2007. "근대 초 유럽의 군사혁명론." 『서양사론』 94호.

현재열. 2000. "빠리 꼬뮈나르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부산대학교 사학과박사학위 논문.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Anderson, B. 2003.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Balibar, E. 1992, *Les Frontières de la Démocratie*. Paris: La découverte.

Belissa, M et Cottret, B. dir. 2005. *Cosmopolitismes, Patriotismes, Europe et Amériques, 1773-1802.* Les Perséides.

Bell, David, A. 2001. *The Cult of the Nation in France. Inventing Nationalism 1680-1800.* Cambridge: Harvard UP.

Bertaud, Jean-Paul. 1985. *La vie Quotidienne des Soldats de la Révolution, 1789-1799.* Paris: Hachette.

_____. 1988. *The Army of the French Revolution. From Citizen-Solidier to Instrument of Power.* translated by R. R. Palmer. Princeton: Princeton UP.

Bond, Brian. 1984. *War and Society in Europe, 1870-1970.* New York: Oxford U.P.

Brady, A. 2006. "Dying with Honour: Literary Propaganda and the Second English Civil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70.

Carrot, Georges. 1979. *Une Institution de la Nation. La Garde Nationale(1789-1871).* Thèse de doctrat. Universitéde Nice.

_____. 1995. *Révolution et Maintien de L'ordre: 1789-1799.* Paris: SPM.

von Clausewitz, C 저. 류제승 역. 1998. 『전쟁론』. 서울: 책세상.

Clifford, Dale, L. 1990. "The national guard and the parisian community, 1789-1790." *French Historical Studies* 16. No. 4.

Contamine, Ph. 1997. "Mourir pour la patrie." *Les Lieux de Mémoire.* dir de P. Nora, Paris: Gallimard.

Cooper, J. 1993. *The Militia and the National Guard in America Since Colonial Times.* Westport: Greenwood Press.

Cottret, B. & Bell, D. A. dir. 2002. *Du Patriotisme aux Nationalismes, 1700-1848: France, Grande-Bretagne, Amérique du Nord.* Créaphis.

Dann, Otto. 1996. 『독일국민과 민족주의의 역사』. 서울: 한울.

Devenne, Florence . 1991. "La Garde nationale: Création et évolution. 1789-Aout 1792."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82. Jan-Mars.

Duby, George 저. 정숙현 역. 2005. 『위대한 기사, 윌리엄』. 서울: 한길사.

Elias, N 저. 박미애 역. 1995. 『문명화과정』. 서울: 한길사.

Flynn, G. Q. 2002. *Conscription and Democracy, the Draft in Franc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Greenwood Press.

Foucault, Michel 저. 박정자 역. 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Fremont-Barnes, Gregory & Fisher, Todd 저. 박근형 역. 2009. 『나폴레옹 전쟁』. 서울: 플래닛 미디어.

Giddens, A 저. 진덕규 역.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Godechot, J. 1971. "Nation, patrie, nationalisme et patrio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Annales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43 oct-déc.

Guest, H. 2000. *Small Change: Women, Learning, Patriotism, 1750-181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nsen, J. M. 2003. *The Lost Promise of Patriotism: Debating American Identity, 1890-192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rari, Y. N. 2005. "Martial Illusions: War and Disillusionment in Twentieth-Century and Renaissance Military Memoir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9.

Hobsbawm, E 저. 강명세 역.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Howard, Michael. 2001. *The Franco-Prussian War*. London: Routeledge.

Hughes, M. & Philpott, W. J. ed. 2006. *Palgrave Advances in Modern Military Hist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Huizinga, Johan 저. 최홍숙 역. 1997. 「중세의 가을」. 서울: 문학과 지성사.

Jaurès, J. 1910. *L'Armée Nouvelle*. présentépar J-N. Jeanneney. Paris: Imprimerie Nationale, 1992.

Kant, I 저. 이한구 역. 1992.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울: 서광사.

Kateb, G. *Patriotism and other Mistakes*. New Haven & London: Yale UP.

Kantorowicz. E. 1951. "*Pro Patria Mori* in medieval political thought." *American Historical Review*, 56.

Landes, Loan, B. 1988. *Women and the Public Sphere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Ita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Lefebvre, Geroge 저. 최갑수 역. 2002. 「1789년의 대공포」. 서울: 까치.

Lestocquoy, J. 1968. *Histoire du patriotisme en France*. Paris: A. Michel.

Lynn. John A. 1989. "Towards an Army of Honor: The moral evolution of the French Army 1789-1815." *French Historical Studies* 16. No. 1.

_____. 1996a. *The Bayonets of the Republic: Motivation and Tctics in the Army of Revolutionary France, 1791-94*. Boulder: Westview Press, Colo.

_____. 1996b. "The Evolution of Army Style in the Modern West, 800-2000."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18. No. 3. August.

_____ 저, 박일송 역. 2006. 「배틀, 전쟁의 문화사」. 서울: 청어람 미디어.

Mackenzie. S. P. 1995. *The Home Guard. A military and Political History*. Oxford: Oxford UP.

Mann, M. 1988. *States, War and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Oxford: Basil Blackwell.

Michener, R. ed., 1993. *Nationality, Patriotism, and Nationalism in Liberal Democratic Societ-*

ies. PWPA.

Mossé, Claude 저. 김덕희 역. 2002.『고대 그리스의 시민』. 서울: 동문선.

Parker, David 저. 박윤덕 역. 2009.『혁명의 탄생』. 서울: 교양인.

Rosanvallon, Pierre. 1990. *L'Etat en France de 1789 Ànos Jours*. Paris: Seuil.

_____. 1992. *Le Sacre du Citoyen*. Paris: Gallimard.

Rousseau, J. -J. 1964a. "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 et sa réformation projetée." *OEuvres complètes*, III. Paris: Gallimard.

_____. 1964b. "Discours sur l'Economie politique." *OEuvres complètes*, III. Paris: Gallimard.

Samuel, R. ed. 1989. *Patriotism: The Making and Unmaking of British National Identity*. Routledge.

Shovlin, J.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Virtue: Luxury, Patriotism, and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Skinner, Q 저. 조승래 역. 2007.『퀜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서울: 푸른 역사.

Smith, J. M. 2000. "Social categories, the Language of Patriotism and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Debate over noblesse commerçant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2.

Soboul, A 저. 최갑수 역. 1984.『프랑스大革命史』 상, 하. 서울: 두레.

Tilly, Ch 저. 이향순 역. 1994.『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서울: 학문과 사상사.

_____ 저. 윤승준 역. 2000.『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서울: 새물결.

Viroli, M. 1995. *For Love of Country. An Essay on Patriotism and Nationalism*. Oxford: Clarendon Press.

Winock, M. 1990. *Nationalisme, Antisémitisme et Fascisme en France*. Paris: Seuil.

Woloch, Isser. 1986. "Napoleonic Conscription: State Power and Civil Society." *Past and Present* 11, May.

ABSTRACT

Militia and Patriotism in the Period of Formation of Modern Nation-State

Tai Young Ho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o change from ancients subjects to citizen in the frame of nation-state, in examining formation of modern conscription system. The institution of conscription shows who are objects of conscription, which signifies who can have citizenship. And military mobilities give occasions of education of citizen and take a role of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This is why conscription system is a good example which can reveal process from subject to citizen. State decides who are objects of conscription and, also, tries to disseminate new style of living and national idea to the conscripts. They get values, culture and langage as nationhood, and the conscriptive system is opertated as instrument of nation building.

There are two issues entangled in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and citizen army. First, the militia is related to image of citizen, which is traditional issue of political science, that is problem of community from Plato to now. Second is problem of transformation from patriotism to nationalism in the period of modern nation-state. Two problem are solved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nation-state, in making new model of modern citizen and ideological role of nationalism. The new position of army is located in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Called citizen army or national guard, modern army is situated in the institution of modern state. Modern stat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form of community as city, empire, etc., is formed, and it is simultaneous in the transformation from patriotism to nationalism.

Keywords: nation-state, patriotism, nationalism, militia, nation, citizen